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세*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도시가 마닐라라서 마닐라와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학이 위치해있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은 괜찮았지만 화장실이 좀 불편했다. 번기에 커버가 없거나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층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다. 어학원은 호스텔에서 길 건너에 바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 편했다.
수업	첫날에 입학시험을 보고 수준에 따라서 반이 시간표가 짜여져 나온다. 아침 8시부터 6시반까지 수업이 있는데 그 중 두시간의 공강이 있다. 수업은 대그룹수업 3시간, 소그룹수업 2시간, 맨투맨 수업 3시간으로 매일매일 8교시의 수업을 들었다. 대그룹 수업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듣는데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사람도 함께 듣는다. 10명 정도가 같이 듣는다. 소그룹 수업은 대그룹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듣는다. 아무래도 소그룹이 사람이 적다보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맨투맨 수업은 라이팅, 스피킹1,2로 3개의 수업이 있다.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한다. 매주 2개의 영어 에세이를 쓰고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다. 소그룹 수업 때 한번 스피킹을 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마다 단어시험을 보고 금요일에는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테스트가 있다. 맨투맨 시간에 영어로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다.
Activity	activity에는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민도르 트립 세가지가 있었는데 세가지중 민도르 투어만 신청했었다. 그런데 8월이 필리핀 우기라서 민도르 트립이 취소되어 activity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내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팍상한 폭포는 왕복 6시간 정도 걸렸다고 들었다. 정작 가서는 1시간 정도 있었지만 풍경 같은 것들은 좋았다고 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의 여름 날씨처럼 덥고 습하다. 비가 아주 가끔 쏟아졌지만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가 대부분 이었다. 그렇지만 8월은 필리핀 우기라서 8월중 순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오기도 했다. 접이식 우산을 챙겨가야 한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가장 걱정했던 것이 필리핀의 치안문제 이었는데 항상 주의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호스텔을 사용했다. 방은 대체적으로 넓지만 침대나 책상이 작아서 불편했다. 우리 방에는 딱히 바퀴벌레나 다른 벌레들이 없었다. 방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 수압이 조금 약하고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매일 밤 10시에 점호를 했다. 침구류는 담요를 제공해주고 2주에 한 번씩 갈아준다. 일주일에 2번 방 청소를 해주고 소독도 해줘서 편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 식당 (O)기타()</p> <p>평일에는 보통 호스텔 식당에서 주는 급식을 먹었다. 한국 음식을 주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음식이 짜고 달다. 주말에 놀러나갔을 때는 필리핀 식당을 이용했는데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맛은 괜찮았지만 대부분 째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통학했다. 평일 저녁에나 주말에 놀러 나갈 때는 대부분 Grab택시를 이용했다. 우버택시나 한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개념이다. Grab택시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을 이용했다. 필리핀은 금요일이나 주말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다.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면 더 심해진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및 기념품	450,000	
합계	4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물갈이를 하거나 감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가져가면 된다. 필리핀에 갈 때 최대 가져갈 수 있는 폐소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달러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해서 사용했다. 큰 쇼핑물에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때 마다 환전을 했다. 교실에서는 에어컨을 항상 틀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긴 팔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녀온 어학연수였는데 4주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처음에는 4주가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필리핀에서 살아보니 매우 짧게 느껴졌다. 방학이라서 놀고 쉬기만 하다가 필리핀에서 8시간동안 수업을 들으려 하니 어색하고 피곤하기도 했는데 금방 적응이 되어서 잘 생활했던 것 같다. 4주라는 시간이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스피킹 실력이나 라이팅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특히 맨투맨 수업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유익했고 선생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다. 필리핀에 와서 수업을 하며 느낀 것은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힘들었다. 어학연수에 오기 전 간단하게 단어공부라도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에 와서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다.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필리핀 치안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걱정만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 보다는 시간이 나면 여러 곳을 다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스로 주의만 잘하면 크게 위험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다. 친구들과 여러 곳을 구경하고 필리핀 음식도 먹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은 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액티비티를 민도르 투어만 신청했었는데 비 때문에 취소되어서 아무것도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팍상한 폭포라도 다녀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든다. 필리핀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대학생활 중 한 번쯤은 어학연수를 다녀오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어학원가는 길</p>	<p>필리핀의 교통수단(지프니, LRT)</p>
	
<p>마닐라 투어</p>	